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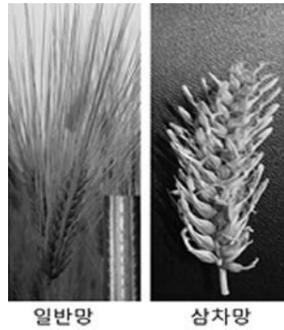
# 소가 잘 먹는 청보리 '유진' 보급 시작

### 까락 없어 목 넘김 부드럽고 추위와 쓰러짐에 강해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까락이 퇴화되어 부드러운 소가 잘 먹는 사료용 청보리 품종 '유진'을 보급한다. 청보리는 알곡은 물론, 잎과 줄기까지 먹을 수 있어 수입 조사료와 배합 사료의 대체 효과가 크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보급되는 청보리는 '영양', '우호' 2품종이다.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유진' 품종을 통상실시하고 이

달 중 종자를 공급한다. '유진' 품종은 거친 일반망에 비해 까락이 퇴화한 부드러운 삼차망으로 소가 잘 먹는다. 추위와 쓰러짐에 강하며, 수량도 많다. 소화가 되는 영양소 총량(TDN)이 60.1%로 '유연' 보리에 비해 높으며, 젖산 함량은 높고 초산과 낙산이 적어 사일리지 품질도 좋다. 종자 구입을 원하는 농가는 각 시

군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전화(063-919-1615)해 문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이점호 작물육종과장은 "삼차망 청보리 수요가 늘고 있는데 보급종이 없어 종자를 구하지 못한 농가가 많았다"라며, "이번 '유진'의 보급으로 사료 재배 농가는 조사료 수량을 늘리고, 축산 농가는 영양가 높은 조사료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전북중기청, 노동시간 단축 종합설명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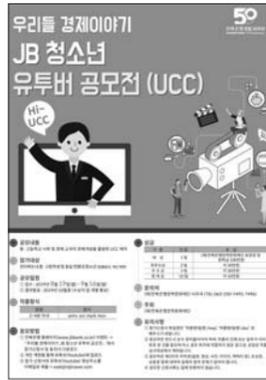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오늘부터 27일까지 전북지역 관할 고용노동청(전주, 익산, 군산)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전북지역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자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과 지역 사업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전북지역 관할 고용노동청은 노동시간 52시간 단축 시행 등 개정된 근로기준법, 고용장려금 등 사업주 지원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을 소개한다. 전북중기청에서는 정책자금 지원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김영태기자

## “청소년들의 톡톡 튀는 경제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JB 청소년 유튜브 공모전' 개최... 내달 16일까지 접수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경규)은 19일부터 9월 16일까지 '우리를 경제이야기 JB청소년 유튜브 공모전(UCC)'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JB 청소년 유튜브 공모전(UCC)'은 유튜브 세대인 청소년들이, 다소 어려워하는 경제 개념을 스스로 UCC 제작 및 활용을 통하여 경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도내 중·고등학교 및 동일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중·고등학교 사회 및 경제 교과와 경제개념을 활용하여 팀 단위로 UCC를 제작해 9월 1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작품 길이는 2분에서 4분 이내여야 한다.

당첨될 경우 대상(1팀)은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표창장과 장학금 100만원, 최우수상 2팀에는 각 50만원, 우수상(3팀)은 각 30만원을 받는다. 공모전 결과는 10월 중 수상자 앞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된다.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김경규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 심사는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노력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할 예정이다"며, 또한 "전북은행 창립50주년을 기념하여 재단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써 도내 중·고등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에서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다운로드 작성 후 우편 혹은 이메일 송부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사회공헌부 250-7496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과기정통부, '5G보안협의회' 발족... 이슈 점검·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 이동통신의 본격적인 도입과 확산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보안이슈를 점검하고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5G보안협의회'를 구성해 19일 발족했다. 협의회는 작년 10월부터 운영해 왔던 '5G보안기술자문협의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학계·통신사·제조사·보안기업·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과기정통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 아래에는 정책·기술·표준 등 3개 분과를 운영하며, 각 분과의 간사 역할은 한국인터넷진흥원(정책분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기술분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표준분과)에서 맡기로 했다.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회의를 주재할 위원장과 분과장을 학계 전문가 중에서 선출해 협의회 의회 세 부

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5G와 관련된 보안 이슈 및 동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했다. 앞으로는 각 분과별 회의를 통해 주요 선진국의 5G보안 정책, 5G 핵심 네트워크 보안위협 및 대응기술, 5G 보안 국제 표준화 동향 등 특정 주제별로 심층 논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향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5G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으로서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만큼, 이번 협의회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혜가 모아져서 5G 네트워크의 보안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 상용화를 이룬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도록 협의회 논의결과 등을 참고해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19일 전주시 효천지구 내 효천지점을 개점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 김용범 기재1차관 “전방위적 노력 절실... 꼼꼼하고 세심하게 정책 펼칠 것”

김용범 신임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가 펼쳐게 되는 정책이 성장에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숫자로 계산해보고 치밀하게 디테일을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전방위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우리 거시경제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 주체들

의 모든 경제활동과 정부 정책이 모여서 GDP(국내총생산) 숫자로 나타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신명 나게 일해야 최상의 성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조직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차관으로서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홍남기) 부총리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이날 직원들에게 배포한 취임인사에서 “디테일”을 강조했다. 그는 “약평소선(若平小鮮)을 언급하며 “나라 다스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며 “작은 물고기를 잘 구우려면 형태가 유지되면서 속까지 잘 익어야 되지만 디테일에 약하

고 덜렁거리면 그 물고기는 부서지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할 때에도 실제 현장에서 정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디테일을 잘 챙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사자성어 ‘선죽제인(先制制人·먼저 행하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을 빗대 “시장을 적극 모니터링해 위험 요인을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인구구조 변화, 기술 발전방향 등 장기적·구조적 요인을 예측하고 산업구조를 개편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고장난명(孤掌難鳴·손바닥도 혼자

서는 소리를 내지 못함)’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독불장군식 업무처리보다는 함께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겠다”며 “소통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일본 수출규제 및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대외 리스크 관리,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 산업구조 개편 및 미래 성장동력 마련 등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무척이나 쉬운 과제가 없다”면서 “문제가 있으면 해법도 있는 게 세상 이치이니만큼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

## 전북은행, 효천지점 개점...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9일 전주시 효천지구 내 효천지점을 개점했다고 밝혔다. 효천지점은 효천지구 내 최초의 1금융권 은행으로서 인근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효천지구 내 최초 은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아파트 입주인 및 입점 상가 주민을 위한 금

용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언제나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은행들은 비대면채널 확대, 사이버 브랜치 등으로 영업점포 수를 줄이는 반면, 전북은행은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질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포수를 늘리고 있으며, 2018년말 영업점수 94개에서 이번 효천지점 개점에 따라 점포수가 96개에 이르게 됐다. /김윤상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